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 —1990년과 1991년의 비교분석—

윤 용 탁*
모 경 환**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III. 연구대상 및 방법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논의

I. 서 론

한 사회의 정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성원들의 기본적인 정치정향 *political orientation*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정향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정치적 태도가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기본적인 정치정향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매

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다가 중학교 3학년에 이르면 거의 성인과 같은 수준의 안정된 정치정향을 지니게 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유지된다는 것이다(M.K. Jennings & R.G. Niemi, 1968). 따라서 한 사회의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는 곧 그 사회의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태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가능하게 되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정치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기의 정치태도가 어떻게 형성·발전되며, 변화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성인기 이전의 정치관의 발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 Dawson, K.Prewitt & Dawson, 1977). 성인기 이전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3기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즉 1) 초기 소년기 (early childhood : 5세-9세), 2) 후기 소년기 (late childhood : 9세-13세), 3) 청소년기 (adolescence : 13세-18세)로 청소년기는 소년기의 후반에 속함과 동시에 성인의 바로 직전단계에 해당하는 과도기이다.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학습시기로서 사회적 기능을 획득하고, 가치판단과 내적 기준을 형성하며, 참여적 기능을 발전시키는 때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와 발전과정을 겪게 되는 시기로서,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식과 사고에 있어서 최대의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가족, 학교, 동료집단, 그리고 매스미디어 등의 정치사회화 기구 agents를 통해서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평가하며 정치정향 및 정치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정치사회화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의 정치태도의 변화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를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의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함과 아울러, 이러한 정치적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의 역할을 1990년 6월과 1991년 5월말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1990년의 5-6월은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되는 정치불안기였으며, 1991년의 5월에는 시위과잉진압치사사건과 분신정국으로 이어졌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거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형성해가는 정치적 태도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 및 정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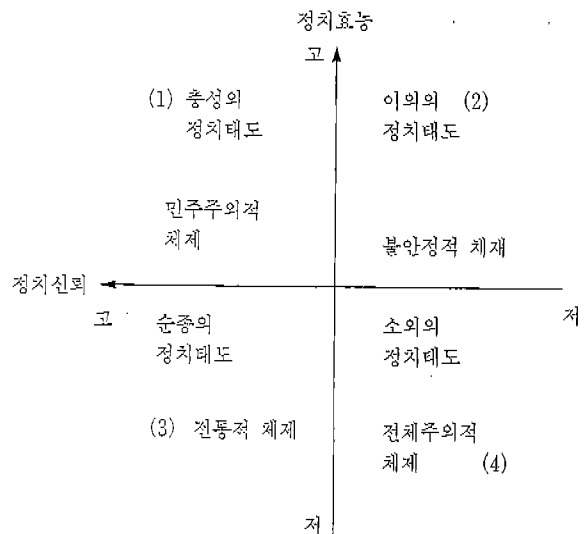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구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0년과 1991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효능 *political efficacy*과 정치신뢰 *political trust*의 차원에서 어떤 유형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가?
2.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학년이나 성과 같은 사회인구적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3. 매스미디어의 이용정도와 가족, 친구 등의 여러 사회화기구들은 이러한 정치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에서 정치적 정보를 얻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정치효능과 정치신뢰를 통하여 정치적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페이지(Paige)에 의해서

〈그림 1〉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의 결합관계



제안된 바, 양자를 결합관계로서 설명하는 것이다(Paige, 1971).

그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효능과 정치신뢰 간의 결합관계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4가지의 결합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즉, 정치효능이 높고 정치신뢰도 높은 경우(결합1), 정치효능은 높으나 정치신뢰가 낮은 경우(결합2), 정치효능은 낮은 반면 정치신뢰는 높은 경우(결합3), 정치효능도 낮고 정치신뢰도 낮은 경우(결합4) 등이 이에 속한다.

결합1의 경우 개인의 차원에서는 충성 *allegiant*의 정치정향을 가지게 되고, 정치체제는 민주적 *democratic* 체제가 형성된다. 결합3에서는 개인은 순종적 *subordinate* 정치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주로 전통적 *traditional* 정치체제에서 나타난다. 결합4에서는 개인은 소외적 *alienated* 태도를 가지게 되며, 정부는 전체주의적 *totalitarian* 성격을 가지게 된다. 위 세 경우에서는 모두 안정적 *stable*인 정치체제가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결합2의 경우는 개인은 이의적 *dissident* 정치태도를 가지게 되며 그러한 분위기속의 정치체제는 불안정 *unstable*하게 나타난다. 페이지에 의하면 결합2에서와 같이 정부가 믿을만 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을 경우에는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행동이 야기될 수 있으며 불신의 정도가 크면 보다 급진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페이취는 1967년 7월에 있었던 미국 뉴저지주 뉴워크시의 흑인폭동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위의 네 유형의 정치태도와 폭동가담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폭동가담자들에게서 이의적 정치

태도가 가장 뚜렷이 나타남을 밝혔다.

이러한 정치효능과 정치신뢰 간의 결합관계로서 한국청소년들의 정치태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세구의 연구(1979)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충성의 태도를 보이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의적 태도를 나타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종렬의 연구(1986)에서는 국민학생은 순종적 태도, 중학생은 충성의 태도를 보이다가 고등학생은 소외의 정치태도로 변화함을 밝힌 바 있다.

I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를 연구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거주지역과 학교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1990년과 1991년 모두 한 지역의 동일한 학교(강남지역의 Y중학교와 E고등학교)를 택하였다. 표집은 유사종단설계 *Quasi-longitudinal design*의 추세조사 *trend survey* 모형을 따랐으며 중학교 1학년의 남·녀 각 1학급, 3학년의 남·녀 각 1학급, 고등학교 2학년의 남·녀 각 1학급, 총 6학급을 선정하였다. 표집의 사례수는 1990년에 322명, 1991년에 310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학년별, 성별 구성분포를 1990년과 1991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1990년)				(1991년)		
	남	여	계 (%)	남	여	계 (%)
중1	52	51	103(32.6)	49	49	98(31.8%)
중3	55	56	111(35.1)	54	51	105(31.1)
고2	55	47	102(32.3)	48	57	105(34.1%)
계 (%)	162 (51.3)	154 (48.7)	316 (100.0)	151 (49.0)	157 (51.0)	308 (100.0)

*누락: 6사례

*누락: 2사례

2. 연구의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1990년과 1991년의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태도를 알아 보았다. 설문조사는 1990년에는 6월 13일에서 15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991년에는 5월 23일에서 2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의 양해를 구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이를 작성하게 한 후에 회수하는 절차를 통하여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태도를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의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정치효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과, 정치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치태도 및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정치효능과 정

치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원칙적으로 SRC(Robinson, Rusk & Head, 1968)에서 설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효능

정치효능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줄 수 있다는 느낌이며, 그것은 또한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가능하고 그러한 변화에 개개 시민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Easton & Dennis, 1967). 이에 대한 문항은 5점 척도로 다음과 같다.

1. 정치나 정부는 매우 복잡해서 나같은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2.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민들이 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마치 날씨와 같아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3.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같은 사람의 의견은 정치에 잘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2) 정치신뢰

정치신뢰란 정부, 정치인 혹은 정치체제에 대한 개인의 믿음정도를 뜻한다. 정치효능이 정치투입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면 정치신뢰는 정치산출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 (Gamson, 1968). 정치신뢰는 역시 5점 척도로 다음의 항목들로 측정하였다.

4.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5.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올바르게 일하고 있다.
6. 우리의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믿을 수 있다.
7. 정치가는 일단 당선이 되면 그가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않는다.
8.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줄 능력이 있다.

그리고 정치효능과 정치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위의 문항외에도 사회인구적 속성의 배경조사과 TV 정치프로그램의 시청수준, 가족·친구와의 정치적 대화 빈도, 신문의 정치면 기사구독 빈도 등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중학교 3학년에 이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기 시작하며 고등학생때에는 일정하게 이용하게 된다 (Jennings et al, 1968)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매스미디어를 비롯하여 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 정보를 얻는지에 대한 설문이 추가되었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설문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하였으며,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하여 이원변량분석 *two-way*

*ANOVA*과 사후검증 *multiple comparis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치사회화기구와의 접촉빈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하였으며 주정치적 정보원의 파악을 위하여 복수응답을 *multi-response table*를 제시하였다.

4. 정치신뢰와 정치효능의 요인화

위에 제시한 8개 항목이 두개의 요인이 되어 각각 정치효능과 정치신뢰를 측정하고 있는지와 서로 다른 두 시점에 걸쳐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에 대한 대등한 측정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방법론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주성분분석 *Principal-Component Analysis*을 통한 구인타당도 *construct validity*를 검토하였다.

각기 다른 두 표본집단에 대해 Varimax적교회전 *orthogonal rotation*에 의한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990년의 자료에서는 요인 1에는 정치신뢰를 측정하고자 했던 5개 문항이 .59에서 .80까지의 높은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요인 2에는 정치효능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이 .72에서 .76까지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1의 EIGENVALUE는 3.25로 전체변량의 40.6%, 요인2는 EIGENVALUE는 1.25로 전체변량의 15.5%를 설명한다.

1991년의 자료에서는 요인 1에는 정치신뢰를 측정하고자 했던 5개 문항이 .53에서 .77까지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인 2에는 정치효능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이 .70에서

〈표 2〉

Varimax 회전분석에 의한 요인행렬표

항 목	1990년도		1991년도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 정부결정은 국민생각을 반영	.76555	.00216	.72506	.13276
·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함	.80245	.12767	.77008	.09666
· 정부지도자는 부패하지 않음	.74852	.22959	.67366	-.05335
· 정치가는 당선후 약속안지킴	.66124	.15005	.53150	.11516
· 정부는 국민을 잘 살게 할 능력있음	.59480	.30192	.58737	.05027
· 정치는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	.00923	.76055	-.14685	.76866
· 정부일은 국민과 상관없음	.27195	.71647	.24828	.69608
· 나 같은 사람의 의견은 정치에 반영안됨	.19213	.72880	.15056	.74445

.77까지의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1의 EIGENVALUE는 2.50으로 전체 변량의 31.2%, 요인2는 EIGENVALUE가 1.48로 전체변량의 18.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요인분석방법을 통하여 8개 문항의 저변에 깔려 있는 2개의 태도차원 *Attitudinal dimension*을 포착시켰으며 또한 각기 다른 두 시점에서 수집된 두 자료들 내에서 8가지 변수

들이 두가지 차원으로 비슷한 관계양식을 맺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태도의 특징

앞에서 논의한 페이취모형에 입각해서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의 정치태도의 경향을 보면

〈표 3〉

성과 학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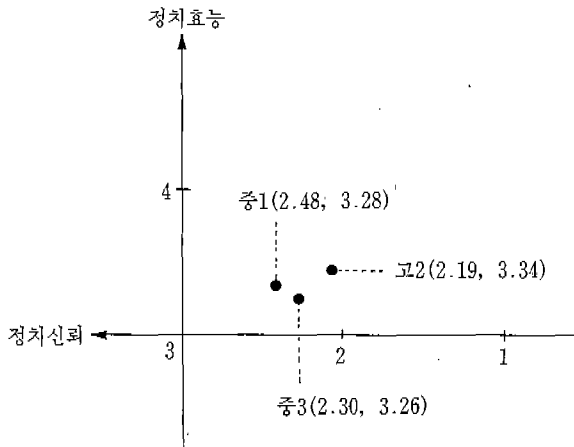
변수명	전체(평균) (표준 편차)	성 별		학년별		
		남	여	중1	중3	고2
정치신뢰	2.33(.77)	2.33(.73)	2.32(.69)	2.48(.80)	2.30(.70)	2.19(.59)
정치효능	3.29(1.04)	3.14(1.03)	3.45(.82)	3.28(.99)	3.26(.95)	3.34(.90)

〈표 4〉

성과 학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1991년)

변수명	전체(평균) (표준 편차)	성 별		학년별		
		남	여	중1	중3	고2
정치신뢰	2.28(.65)	2.35(.64)	2.21(.64)	2.31(.74)	2.29(.63)	2.25(.55)
정치효능	3.35(.94)	3.40(.84)	3.30(.99)	3.41(.78)	3.27(.97)	3.36(.98)

<그림 2> 청소년의 정치태도 유형(1990년)



<그림 3> 청소년의 정치태도 유형(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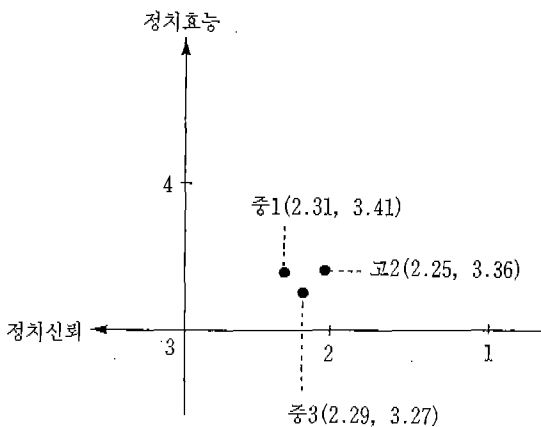


표 3, 표 4와 그림 2,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과 1991년 모두 정치효능은 높으나 정치신뢰는 낮은 이의적 정치태도 즉, 불안정한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정치태도의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1 때에는 충성의 태도를 보이다가 중3 때부터 이의적 태도를 보인 정세구의 연구나 중학생은 충성의 정향을 보이던 것이 고등학생때부터는 소외의 정향을 보였던 이종렬의 연구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모두 1990년과 1991년에 일관되게 이의적 정치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사회인구적 Socio demographic 속성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학년이 정치적인 성숙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정치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신뢰와 정치효능이 성과 연령(학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정치신뢰와 정치효능에 대하여 각각의 성과 연령에 의한 이원변량분석 *two-way ANOVA*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1990년의 자료에서는 학년이 높아갈수록 정치신뢰가 떨어지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정치효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5, 5-1>.

1) 학년별, 성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1990년)

(1) 정치신뢰

정치신뢰의 경우 학년별 평균이 중1(2.48), 중3(2.30), 고2(2.19)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감소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는데 <표 5>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시 사후검증을 해본 결과 쉐페 검증 *Scheffé test*에 중1과 고3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정치효능

남학생의 정치 효능감은 3.14, 여학생은 3.28로서 여학생이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alpha = .01$ 에서

유의한 차이로 검증되었다.

〈표 5〉 학년별, 성별 정치신뢰의 차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주효과	4.441	3	1.480	2.959
학년	4.417	2	2.208	4.414*
성	.043	1	.043	.085
상호작용효과				
학년X성	.272	2	.136	.272
Explained	4.714	5	.943	1.884
Residual	155.113	310	.500	
Total	159.827	315	.507	

*p<.05

〈표 5-1〉 학년별, 성별 정치효능의 차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주효과	8.119	3	2.706	3.069
학년	.518	2	.259	.294
성	7.740	1	7.740	8.777**
상호작용효과	1.036	2	.518	.587
학년X성	1.036	2	.518	.587
Explained	9.155	5	1.831	2.076
Residual	273.393	310	.882	
Total	282.549	315	.897	

**p<.01

2) 학년별, 성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1991년)

(1) 정치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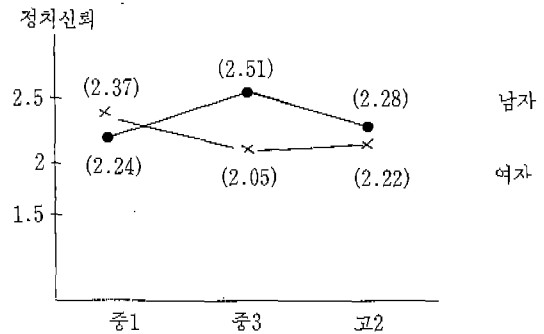
1991년의 자료에서 정치신뢰의 경우 학년별 평균이 중1(2.31), 중3(2.29), 고2(2.25)으로

〈표 6〉 학년별, 성별 정치신뢰의 차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주효과	1.668	3	.556	1.398
학년	.141	2	.070	.177
성	1.489	1	1.489	3.746
상호작용효과	4.652	2	2.326	5.850
학년X성	4.652	2	2.326	5.850**
Explained	6.320	5	1.264	3.179
Residual	120.083	302	.398	
Total	126.403	307	.412	

**p<0.01

〈그림 4〉 정치신뢰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학년수준에 따라서 점차 냉소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2.35, 여학생이 2.21로 여학생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 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과 학년간에 $\alpha=.01$ 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도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에서는 여학생이 정치신뢰가 높다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남학생의 정치신뢰가 높아짐을 보

여 주고 있으며 특히 중3에서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정치효능

정치효능의 경우에도 남학생이 3.40으로 여학생 3.30보다 높게 나타나며 중학교 1학년에서 3.30, 중학교 3학년에서 3.27, 고등학교 2학년에서 3.36으로 나타나고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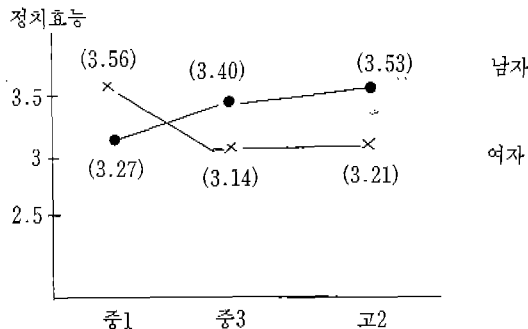
〈표 6-1〉 학년별, 성별 정치효능의 차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주효과	1.839	3	.613	.738
학년	1.068	2	.534	.643
성	.804	1	.804	.968
상호작용효과	5.475	2	2.737	3.295
학년X성	5.475	2	2.737	3.295*
Explained	7.314	5	1.463	1.761
Residual	250.857	302	.831	
Total	258.170	307	.841	

* $p < .05$

위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과 학년 간에 상호작용효과($p < .05$)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도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정치효능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



즉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높다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남학생이 높은 정치효능을 보여 주고 있다.

3. 청소년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개인의 정치적 태도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매스미디어 등과 같은 정치사회화 기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들 기구와의 접촉도 *exposure*를 조사하고, 접촉도의 차이가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TV 시청

매스미디어는 그 보급과 이용의 증대로 정치사회화의 기구로서의 기능을 더해가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대화의 통로가 제한되어 있고 직접적인 정치 현실의 경험이 제약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정치현실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더우기 시청시간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TV의 매체로서의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TV에서 뉴스나 정치와 관계있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와 그에 따른 태도점수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응답자의 50% 이상이 주 4회 이상 뉴스나 정치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TV시청의 빈도에 따라 정치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1991년의 자료에서 TV시청빈도가 경시청에서 중시청으로 갈수록 정치효능이 높음을 나타내

〈표 7〉

TV 정치프로그램의 시청빈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백분율		정치신뢰		정치효능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가끔 본다(주1-3회)	43.5	32.9	2.45	2.28	3.26	3.13
자주 본다(주4-6회)	36.9	41.3	2.25	2.30	3.40	3.44
매일 본다	19.6	21.0	2.25	2.26	3.27	3.67
F	—	—	2.96	.08	.74	7.83***

('전혀안본다'는 항목에 응답한 학생은 분석의 필요상 제외시켰다: 1990년 21명, 1991년 15명).

*** $p < .001$

었다($F=7.83$, $p < .001$). 그리고 학년별, 성별로 TV시청도를 조사해 본 결과 1990년의 자료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 족

가족은 개인이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화 매체로서 정치적 정향의 전수와 정치적 자아의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가정내의 상호접촉의 양, 유대의 밀착도, 그리고 가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개인에게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Dawson, 1977).

“정치에 대해 가족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와 그에 따른 태도점수는 〈표 8〉과 같다.

가족과의 정치적 대화의 빈도에 따라 정치태

도에 차이가 있는데 일원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1991년의 자료에서 가족과의 정치적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정치효능이 높음을 나타내었다($F=6.09$, $p < .01$).

가족과의 정치적 대화빈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로 조사해 본 결과 90년의 자료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치적 대화를 자주하며 학년이 높아갈 수록 줄어드는 것을 나타냈다. 반면에 91년의 자료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동료집단

동료집단 *peer group*은 한 사회의 정치문화를 전달하고 강화할 뿐만아니라 개인이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학습하는 사회체계를 제공하기도 한다(Langton, 1969).

〈표 8〉

가족과의 정치적 대화빈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백분율		정치신뢰		정치효능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거의하지 않는다	30.7	35.5	2.28	2.30	3.28	3.11
가끔한다	54.7	49.5	2.30	2.36	3.31	3.44
자주한다	10.9	15.0	2.20	2.22	3.25	3.59
F	—	—	.72	.49	.09	6.09**

** $p < .01$

<표 9> 친구와의 정치적 대화빈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백분율		정치신뢰		정치효능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거의 하지 않는다	52.2	55.4	2.45	2.33	3.26	3.24
가끔 한다	42.9	39.0	2.21	2.22	3.31	3.50
자주 한다	4.8	5.6	2.01	2.11	3.56	3.41
F	—	—	6.10**	1.80	.74	2.95

**p<.01

“친구들과 정치에 대해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와 그에 따른 태도점수는 <표 9>와 같다.

동료집단과의 정치적 대화의 빈도는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거의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90년 52.2%, 91년 55.4%).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90년의 자료에서 친구들과의 정치적 대화의 빈도가 높을수록 정치신뢰가 낮아짐을 볼 수있으며, 이는 $\alpha=.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6.10$, $p<.01$).

친구들과의 정치적 대화빈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로 조사해 본 결과, 1990년의 자료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치적 대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1년의 자료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자주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과의 정치적 대화를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 문

TV와 함께 접근하기 쉬운 대중매체로서 신문을 정치적 정보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유종해의 연구(유종해, 1973)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TV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태도보다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면과 정치면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의 정치면 기사를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와 그에 따른 태도점수는 <표 10>과 같다.

신문의 정치면 기사 구독빈도에 따라 정치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1991년의 자료에서 신문의 정치면

<표 10> 신문의 정치면 기사 구독빈도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

	백분율		정치신뢰		정치효능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거의 읽지 않는다	32.4	30.1	2.45	2.22	3.13	3.04
가끔 읽는다	49.0	55.2	2.28	2.33	3.38	3.39
자주 읽는다	18.6	14.5	2.27	2.20	3.36	3.76
F	—	—	2.13	1.25	2.26	10.32

***p<.001

〈표 11〉

청소년의 정치적 정보원(1990)

	전체	연령(학년)			성별	
		중1	중3	고2	남	여
전 체	312	102	110	100	161	151
가 족	56.1	69.6	49.1	50.0	51.6	60.9
친 구	24.4	30.4	19.1	24.0	26.1	22.5
선 생 님	29.2	34.3	19.1	35.0	33.5	24.5
신 문	71.2	65.7	73.6	74.0	75.2	66.9
T V	90.1	92.2	89.1	89.0	89.4	90.7
라 디 오	41.0	51.0	43.6	28.0	43.5	38.4
잡 지	22.4	22.5	18.2	27.0	27.3	17.2
기 타	12.2	17.6	9.1	10.0	16.8	7.3

〈누락 10명〉

기사구독빈도가 높을 수록 정치효능이 높아짐을 나타내었다($F=10.32, p<.001$).

신문의 정치면 기사 구독빈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로 조사해 본 결과, 90년의 자료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들의 정치적 정보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지식의 습득방법은 일정한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 multi-response)에서 90년의 자료에서 전체적으로 TV가 90.1 %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문이 71.2 %로 2위, 다음으로 가족(56.1%), 라디오(41.0%), 교사(29.2%), 친구(24.4%), 잡지(22.4%), 기타(12.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에 따른 분포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은

TV 다음으로 가족을 들고 있어서 다른 하위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들은 가족 다음으로 교사를 들고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문에서의 정치적 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교사, 신문, 잡지에의 의존도가 높았고 여학생에게는 가족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1년의 자료에서는 TV가 94.2%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문이 71.8%로 2위, 다음으로 가족(49.8%), 라디오(42.0%), 교사(37.7%), 잡지(23.6%), 친구(21.6%), 기타(17.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년과 성에 따른 분포는 〈표 11-1〉에 제시하였다. 1990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TV와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약간 증가하였으며 친구와 잡지의 순위가 바뀌었다. 고학년에서 친구의 비율이 높아지며, 여학생에게서 친구와 교사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정치적 정보의 습득원으로서 TV나 신문 등 매스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

<표 11-1>

주 정치적 정보원(1991)

	전체	연령(학년)			성별	
		중1	중3	고2	남	여
전 체	305	98	102	105	148	157
가 족	49.8	57.1	41.2	51.4	41.9	57.3
친 구	21.6	18.4	14.7	31.4	14.2	28.7
선 생 님	37.7	29.6	43.1	40.0	27.7	47.1
신 문	71.8	69.4	78.4	67.6	71.6	72.0
T V	94.4	95.9	93.1	94.3	94.6	94.3
라 디 오	42.0	43.9	45.1	37.1	45.3	38.9
잡 지	23.6	19.4	30.4	21.0	25.0	22.3
기 타	17.0	18.4	14.7	18.1	20.9	13.4

<누락 5명>

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교사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정치 태도를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과 1991년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정치적상황이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정치적태도를 형성해 나가는지를 청소년의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의 결합형태를 통해 살펴 보았으며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 가족, 동료집단 등의 제 기구들에 대한 접촉도에 따라 정치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과 1991년의 자료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두 개의 요인, 즉 정치신뢰와 정치효능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정치태도 즉 정치효능은 높으나 정치신뢰는 낮은 이의의 정치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청소년의 정치효능과 정치신뢰에 대하여 학년별, 성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치신뢰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매스미디어, 가족, 친구 등 정치사회화의 매체와의 접촉도와 이에 따른 정치태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91년의 자료에서 TV 정치프로그램의 시청빈도가 높거나 신문의 정치면 기사 구독빈도가 높을 때, 그리고 가족과의 정치적 대화의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정치효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90년의 자료에서는 친구와의 정치적 대화의 빈도가 높을수록 정치신뢰가 낮아짐을 보였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정보의 습득은 주로 TV와 신문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태도는 불안정한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이의적 태도로서 이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급진적 행동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신뢰의 저하는 청소년기 이후에 있어서의 정치적 불신, 냉소와 무관심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태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에서의 정치교육이 정치적지식의 전수에서 벗어나 민주적 태도와 민주적 생활양식을 학습하기 위한 경험의 제공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민주적 참여능력과 문제해결력의 육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정치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다른 정치사회화 기관들과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치적 정보원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매스 미디어의 교육적 노력이 시급하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유종해(1973),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화과정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 4집
- 이종렬(1986), 한국청소년의 정치사회화의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 정세구(1979), “초·중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의 발달”, 한국교육 제 6권 제 1호, 한국교육개발원
- Dawson, R.E., Prewitt, K., & Dawson, K.S., (1977),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 Easton, D & Dennis, J(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1, No.1
- Jennings, M.K., & Niemi, R. G., (1968), “Patterns of Political Learn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38, No.5
- Gamson, W(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linois: Dorsey
- Langton, K. P.,(1969), *Political Socialization*, N.Y.: Oxford Univ. Press, Inc.
- Paige, J. M.,(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6, Oct.
- Robinson, J. P., Rusk, Z. G., & Head, K. B., (1968),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Ann Arbo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 of Michigan

〈ABSTRACT〉

A Research on Korean Adolescents' Political Attitude

*Yong-tak, Yoon**

*Gyeong-whan, Moh***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ts' political attitude, especial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was made of 632 students in a coeducational junior high school and a co-ed high school in KangNam District, Seou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adopted the S.R.C. questions modified to Korean situation. The same questionnaire measurements were conducted at two points, in June, 1990 and in May, 1991. For purpose of comparis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the seventh grade, the ninth grade, and the eleventh grade cohort in the same schoo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J.M. Paige's Model (1971).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1) In both 1990 and 1991, Korean adolescents have 'dissident' political orientation with low trust in the existing political government but high political efficacy. (2) Political trust decreases with growing age. (3) Regular media usage and family discourse on the political issues are weakly related to increase in political efficacy. (4) Adolescents acquire political information mainly from mass media.

Finally,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chool require new ways of organizing the polit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educational efforts of mass media are needed that they may help adolescents to develop democratic attitude and democratic way of life.

*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l University

** Graduate Assistant,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l University